

11월 11일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한국에 모셔옵니다.

중국 법문사 현지에서도 친견이 불가능한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그 장엄한 나뭇잎이 우리곁에 펼쳐집니다!!

불기 2549년(2005년) 11월 대한민국은 2,000만 불자와 더불어 온 국민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해탈의 정토가 됩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유일의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에 즈음하여 2천만 불교도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님, 원로회의 의장 스님, 원로의원 스님, 각 종단 종정 예하 및 원로 대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과 비구, 비구니 스님, 각 신행단체장과 사부대중, 그리고 정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및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희 '중국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대한민국 봉행위원회'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천만 불교도는 물론이요, 5천만 겨레 모두에게 커다란 행복의 기회요, 무한공덕을 짓는 기회이며, 부처님의 가피지묘력으로 국운융창과 세계평화 기여의 더 없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어린 마르부처님은 56억 7천만년이 지난 뒤에야 사바세계에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 역시 백천만겁난조우로 비유될 만큼 어렵고 어려운 인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지골사리를 친견하는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놀랍고 신성하며 장엄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상에 단 하나 뿐이며,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일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대한민국에서 친견할 수 있는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불교도뿐만 아니라 거국민적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봉행위원회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불교도와 5천만 겨레 여러분. 부처님을 친견하는 공덕은 백천만겁의 모든 죄와 업장을 소멸하고 일체의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소원을 성취하고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을 찾아 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러나 적멸보궁을 찾아가더라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특별기도, 친견, 참배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법석에서만 친견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백천만겁난조우의 공덕 짓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은 56억 7천만년을 기다려 마르부처님을 친견하는 공덕에 버금가는 공덕을 불자들과 친견 국민들께 흠뻑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번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지골사리와 함께 중국의 국보급 문화유물 150여 점이 전시돼 중국문화의 진수를 한국 땅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대한민국 봉행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현 고 한국불교대교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 회 장 운 산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운 덕 · 대한불교진각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 회 장 회 정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 파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정 주 · (사)민족화합 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겸 본위원회 후원회장 이재환 7배 돈수합장

불지사리의 나뭇

1987년 사월 초파일!
진신보탑을 철거하고 지하궁 유물을 발굴하던 발굴팀은 사월 초파일 역사적인 불지사리를 발굴하기에 이르른다.
至高至上의 聖體 佛指舍利는 이렇게 다시 세상을 빛내기 위해 나뭇신다.

- '법원주림(法苑珠林)'에 보면 그 8만4천 사리탑 가운데 중국에 19탑이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치저우(岐州)의 법문사 탑 아래 부처님의 손가락뼈인 불지사리가 묻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서기704년(장안4년) 축천무후가 현수국사 법장을 법문사에 보낼 때 해동신라국 시강검 한림학사 승무랑 정수명부시랑 최치원을 동행시켜 탑기침례(탑의 지궁을 열고 불지사리 참배)를 했다는 7일간의 행도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 당송(唐宋) 이래 강택민(江澤民)에 이르기 까지 황제는 이 불지사리 봉양이 관례가 되어 내려 왔고 민간에서는 이에 빌면 소원성취 한다 하여 기적의 신령스러운 성보가 되었습니다.

中國의 皇帝라 할지라도 용이하지 않았던 佛指舍利 親見

2005년 대한민국은 2,000만 불자와 더불어 온 국민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 해탈의 정토가 됩니다.

지하궁 유물



· 류금대좌보살 · 흥안문은향낭 · 우금마갈문 죄유 삼족가은염대 · 감조석수정곽자

당나라 황실 사찰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및 지하궁 유물한국 특별전

기간/장소
서울 - 불기2549년(2005년) 11월 11일(음,10월10일)(금) ~ 12월 3일(음,11월 2일)(토) 23일간 / 올림픽 제2경기장
부산 - 불기2549년(2005년) 12월 8일(음,11월 7일)(목) ~ 12월 20일(음,11월19일)(화) 13일간 / 부산 BEXCO 제1 전시장

주 최
경향신문, (사)부산컨벤션뷰로, PSB부산방송, 부산일보
중국불교협회,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중국 국가문물국

주 관
불지사리 한국이운 봉행위원회

후 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방송, 불교TV

행사내용
친견법회 / 법문사 지하궁 유물전시 / 부대행사 (영상제, 법무, 법패 등)

문의처 : 봉행위원회 TEL.(02)730-7273 FAX.(02)730-7275 http://www.buljisari.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종로우정에쉐르빌딩 3층

